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여야 정면충돌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오늘 표결 처리 시도
“헌법 보장 언론의 자유 침해”
국힘 “정쟁용 탄핵” 연좌 농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탄핵이라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

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경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뉴스스

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남은 헌법 재판관 임기(2024년 10월 만료)인 11개월 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와 연동돼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송갑석 “尹, 부산 민심 달랜다고 아무말 대잔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30일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달 발언에 대해 “부산 민심을 달랜다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아무말’의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심지어 중심으로 삼겠다는 부산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거리만 따져봐도 부산 시청에서 전북도청까지 거리가 260km



중심의 허무맹랑한 2극 체계는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 충청의 발전 전략과도 하등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호남은 호남만의 특성과 강점에 따른 발전 전략을 이미 갖고 있다. 충청, 강원 모두 마찬가지”라며 “그것을 살리는 것이 곧 국토균형발전이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 빛고을장학금 3억7800만원 지급

중고생 등 407명에 장학증서 수여 강시장 “십시일반 정성, 인재 키워”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럭키산업, ㈜동아기술공사, 오비맥주(주) 등 5개의 기업·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빛고을장학생은 광주시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130명, 대학생 187명, 학교밖청소년 12명 등 총 407명이며, 이들에게 총 3억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학업장려 266명, 예·

체능·특기 20명, 생계곤란 79명, 다문화·고려인·탈북민 등 42명이다.

장학금 기탁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럭키산업, 해양에너지, ㈜동아기술공사, 오비맥주(주), 광주는 행 등 총 9개 기업·기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지난해보다 2억2000여만원 늘어난 2억8000만원이 기탁됐다.

기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인원도 2022년보다 167명 늘어났다.

(재)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은 “장학생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광주는 인재들의 실력으로 성장을 이뤄왔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인재를 키우고,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기정 시장, 박흥식 럭키산업 대표, 김영삼 ㈜동아기술공사 대표,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양우천 오비맥주(주) 공장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확대 개편해 올해까지 5668명에게 4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성과보고회 성료

AI사업단, 성공사례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 지원을 받은 광주 AI 스타트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들의 혁신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업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30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성과보고회 ‘AI Boom-up Day’에는 AI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주요성과 발표 및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은 ‘주에스오에스랩’, ‘페르소나AI’, ‘AI 민트’ 등 우수 AI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여러 스타트업이 AI 제품 제작 및 사업 확대를 지원받았고, AI (시) 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AI 투자유치 및 규제 해소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등을 통해 530여개 AI 스타트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통해 AI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투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업 별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 간의 협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AI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고 AI 융합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광주의 혁신적인 AI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와,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AI-밸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서삼석,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대표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30일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국무에서 메틸브로마이



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농촌진흥

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

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 의원은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해 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미 “함평, 군공항 유치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먼저”

김영미(사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은 함평 관광의 성패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여부에 있다며, 함평으로서의 광주 군공항 유치 노력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0일 김영미 부위원장은 함평군이 광



그는 “무안국제공항에서 함평까지 이동시간은 30분 이내로 매우 짧아 무안공항이 함평 관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행보를 멈추고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군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며 “함평군은 실현이 어려운 광주 군공항 유치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을 자연생태공원 등 관광명소로 적극 유치해 실속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그 선결조건으로 광주 군공항도 무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